

# 남구 '복지7979센터' 다양한 주민복지 욕구 충족

올해 서비스 만족도 94%  
"앞으로도 이용할 것" 95%

광주 남구에서 운영 중인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취약계층을 비롯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남구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 대비 1% 증가한 9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복한 복지 7979(칠구칠구)센터는 '친구친구'를 숫자화한 것으로 친구처럼 다정하고 스스럼없이 다가가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난 2019년 6월 개소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 한해 행복한 복지 7979센터를 통해 7979봉사단과 복지 콜센터를 이용한 주민 6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17명으로, 응답률은 82.5% 수준을 보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486명(94%)은 행복한 복지 7979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 만족도 질문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5명(1%)이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는 이용자 복지 욕구 해결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17명 가운데 7979복지 콜센터 전화 상담 또는 카카오톡 모바일 상담을 이용한 주민은 295명이었는데 이 중 278명(94.2%)은 '상담 서비스 후 복지

욕구 해결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향후 7979센터 이용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492명(95%)은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응답자 277명(56%)이 '7979봉사단'을 손꼽았다.

한편 행복한 복지 7979센터는 올 해 콜상담을 통해 서비스 1만2161건을 제공하고 7979봉사단은 동네 봉사활동 1321건을 전개하며 취약계층 주민들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다. 정상이 인턴기자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복구의회



광주 복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규칙안 22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속 선수인단 성비위로 인해 진행된 '복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폐회 후 '신뢰받는 복구의회 구현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복구의원 전체를 대표해 김귀성 의원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참석의원 전체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핸드 프린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형수 복구의회 의장은 "복구의회 20명 의원은 새해에도 43만 구민을 바라보며 주민을 섬기는 복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시민협치 사례 공유·소망 듣기  
광산구 행사 진행

광주 광산구는 지난 18일 1층 로비에서 올 한해 시민 제안으로 이뤄낸 협치 사례를 공유하고 2024년 소망을 듣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운영' 등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현한 사례를 사진으로 남기는 '인생네컷' 협치 사진관을 운영했다. '아이디어 나무'를 활용해 2024년 새해 시민이 광산구에 바라는 소망과 희망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광산구는 수렴한 의견을 '더 이로운 2024 시민협치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통해 공감과 동행의 광산협치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8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올 한해 시민 제안으로 이뤄낸 협치 사례를 공유하고, 2024년 소망을 듣는 행사를 진행했다. 광산구 제공

특별교부세 등 135억원 확보  
복구, 교부세 66억·교부금 70억

광주 복구는 올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135억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복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복구는 지역 현안 사업 7개, 재난안전 사업 8개, 시책 사업 15개 등 30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65억7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9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은 지역 현안 분야 △용봉동·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원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7억원 △광주체육고-한국도로공사 구간 보행로 설치 3억원 등 7개 사업 총 25억원이다.

재난안전 분야는 △중흥동 등 3개 동 하수암거 보수 13억원 △용산고 보도 정비 3억원 등 8개 사업 25억원, 시책 분야는 △지하차도 자동차단기 설치 6억원 △ICT기반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1억6700만원 등 15개 사업 15억7300만원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문화근린공원 인조 잔디구장 보수 9억 2000만원 △문화동 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원 △우산근린공원 수목 및 시설물 정비 3억원 등 31개 주민 편의 사업에 69억9900만원을 교부받았다.

복구는 확보한 특별교부세·금으로 하수암거 집중 정비, 지하차도 자동차단기 설치, 근린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문인 복구정장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 극복과 주민 숙원해소를 위해 정부, 유관 기관 등과 협업체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광산구,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 지자체 선정

생생·향교서원문화유산 부문

광주 광산구는 문화재청이 주최한 '2023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평가의 생생문화유산 활용, 향교·서원문화유산 활용 2개 부문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20일 밝혔다.

선정된 수상안은 △'신창동 타임캡슐을 찾아라' △'무양 in the city(무양 인더 시티)' 2개 사업이다.

생생문화유산 활용분야 '신창동 타임캡슐을 찾아라'는 광주 신창동 유적의 출토 유물을 응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다. △목기를 직접 만들고 목공을 체험하는 목기공방과 목공체험 △직조와 그물짜기를 체험하는 타임캡슐 직조와 그물공방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광주 신창동 유적에 대한 강의와 박물관 해설투어 △실험 고고학 기반 유물 체험 프로그램 '신창동 실험고고학 캠프' 등이 진행됐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분야 우수사업에 선정된 '무양 in the city'는 무양서원의 배향 인물 최사전, 최부를 주제로 한



광산구는 문화재청이 주최한 '2023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평가의 생생문화유산 활용, 향교·서원문화유산 활용 2개 부문에서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광산구 제공

어의 체험, 약초 캐기 등을 운영했다.

사업 중 일부를 유료로 전환해 무료 사업과의 차별화를 시도, 자생 사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향교서원, 생생문화유산, 고택·종갓집,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각종 공모 선정으로 내년 사업을 위한 예산 5억7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2024년 사업은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내년 명칭이 변경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을 통해 광산 문화유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동구 쪽방촌 네트워크, 지역문제 플랫폼 혁신대상

"의회 차원 지원 조례 마련할 것"

'동구 쪽방촌 네트워크'가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주최한 성과보고회에서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동구 쪽방촌 거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인 '동구 쪽방촌 네트워크'는 광주 동구의회, 동구청, 광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동구 자활 등으로 구성됐다. 플랫폼은 쪽방촌 주민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기관, 단체, 시민의 힘을 모아 서로를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쪽방촌 거주자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내년에도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제 2분기 자동차세 부과  
남구, 2만5428대 39억여원

광주 남구는 올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내년 1월2일까지 징수한다.

20일 남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2만5428대에 대한 제2분기 자동차세 39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분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과세기준일인 올해 12월1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기분에 해당한다.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완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 ARS를 이용해 가상계좌 및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남구는 내년도 자동차세의 원활한 징수와 납세자 공제 혜택 제공을 위해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연세액 4.5%를 공제한 고지서를 내년 1월 10일께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된 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연세액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상이 인턴기자